

[인도·남아시아 비즈니스 정보]

스리랑카 교통 인프라 및 주택시장 전망

스리랑카의 최대 도시인 콜롬보 근교에서 2017년 4월 쓰레기더미가 무너져 주택 100채 가량이 무너지고 주민 3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쓰레기 처리장에서 100미터 높이까지 쌓인 쓰레기 더미가 무너진 것이다. 이번 사고는 인구증가를 인프라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도시 인프라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는 도시화 현상이 일어난다. 도시에 사는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도시화율’에 대한 유엔(UN)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교해보면 스리랑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도시화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요인으로는 2009년까지 29년간의 계속된 내전이 사람들의 이동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리랑카에서도 2020년대 이후부터 도시화 진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콜롬보 지역에 더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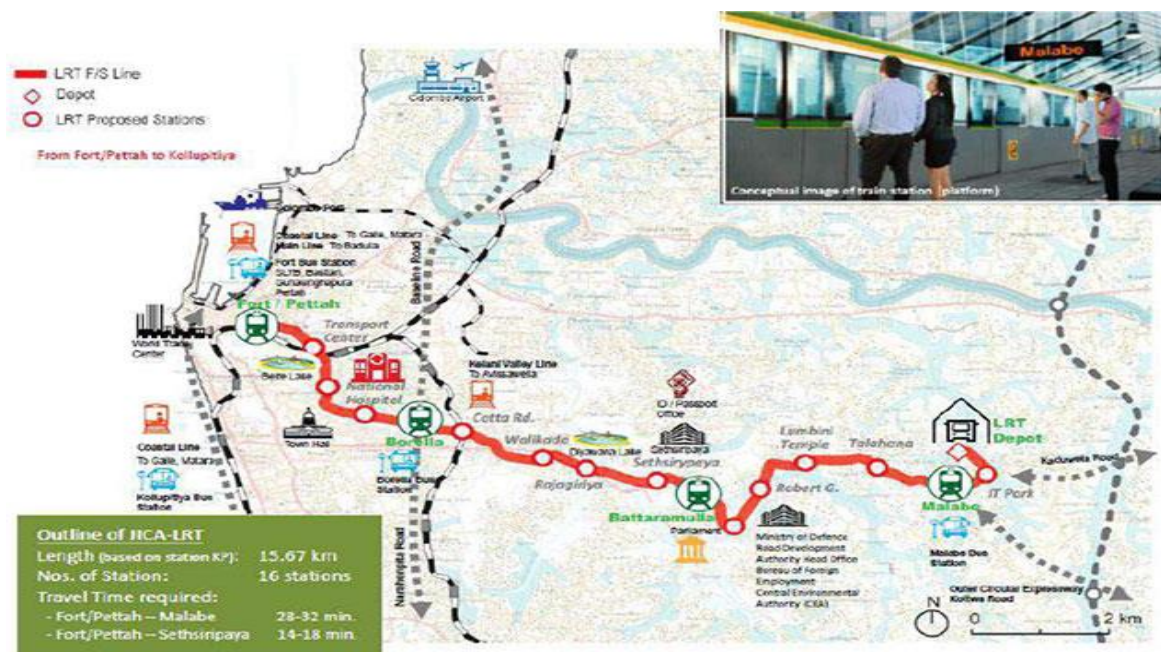
콜롬보의 현재 인구는 56만 명으로 한 나라의 최대 도시로는 소규모이지만, 콜롬보에 출퇴근, 통학을 하는 유동 인구를 포함하면 100만 명 규모의 도시로 꼽힌다. 도시화가 노동력 집약과 소비력 증대를 이끌며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반면 과도한 인구 집중은 교통 체증이나 슬럼 형성 등의 사회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쓰레기 더미의 붕괴는 증가하는 인구에 도시 인프라 정비가 따르지 않았다는 상징이기도 하다. 더 심각한 도시 문제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 또한 이미 표출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도시화가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하고 있는 현재에 도시 인프라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교통 인프라 구축이 급선무

이미 콜롬보의 수용력이 한계를 맞고 있는 것이 교통 인프라다. 특히 중심부의 교통 정체는 심각한데 보통이면 차로 20분 정도 거리이지만 평일 통근, 통학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일이 드물지 않다. 콜롬보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공공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하지만 시내에는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가 적고 평일 아침 저녁은 경찰이 수신호로 유도하기 때문에 효율이 좋지 않다. 또한 운전매너 교육도 잘 되어 있지 않아 몸싸움이나 사고도 잦다. 이런 상황에 스리랑카 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교통량의 피크 시간대에는 버스 전용차선을 설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앞으로 급증하는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통 인프라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해 ODA에서 계획되고 있는 것은 콜롬보의 경량수송시스템(LRT)의 도입이다. 현재 스리랑카는 영국 식민지 시대에 부설된 선로가 아직까지 이용되고 있지만 노후화가 심한 데다 운행 지역도 한정적이다. 일본의 ODA프로젝트는 콜롬보의 중심지와 기존 노선이 닿지 않은 내륙 방면을 연결하는 경로를 그리며 출퇴근이나 통학에 더 편리한 LRT 노선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콜롬보 중심부의 포트 역에서 콜롬보 교외의 마라베까지 16km를 연결하고 약 1km 간격으로 역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스리랑카 LRT 개발 계획〉



출처:Jetro

현재는 FS조사 단계이며, 실제 입찰은 202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건설기간 및 시운전 기간에도 몇 년이 걸릴 장기 계획이지만, 본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새로운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역 주변 개발 등 다양한 경제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또한 프랑스의 원조기관이 민관협력(PPP)의 틀에서 포트에 터미널을 개발하는 계획을 진행하거나 기존의 철도 노선에 대해서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복선화와 전자화를 목표로 조사하고 있는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둘러싼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주택 공급도 서두르고 있어

교통 인프라에 더해서 중요한 것이 주택 정비이다. 대가족 문화가 남아 있고 도시 주변부에서도 옛날 그대로의 단독 주택 형식이 아직 주류지만, 소규모 세대를 위한 아파트 등의 건설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주변국에 비하면 적지만 일부 슬럼이 형성되고 있는 지역도 있다. 콜롬보로의 인구 유입에 있어서 각 사회 계층을 대상으로 각각의 요구에 맞는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스리랑카의 대형 건설회사인 인터내셔널 컨스트럭션 컨소시엄(ICC)은 스리랑카 각지에서 폭넓은 아파트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콜롬보 근교에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 각각을 대상으로 한 주택을 내놓고 있다. 중산층과 빈곤층을 위한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건설용 토지를 정부가 싼 값으로 제공하거나 이렇게 정부가 제공한 용지 안에서 중산층용 물건과 함께 일부 부유층 전용의 디자인 물건도 건설,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는 등 건설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는 LRT의 종착역으로 예정된 마라베에서도 대규모 개발을 통해 고급 주택 300가구와 약 250개 객실을 갖춘 아파트 건물을 건설했다. ICC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건설업계는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도시가 성장하면서 기업의 기회도 확대되고 있지만 동시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처럼 스리랑카에서는 도시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정부와 원조기관의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참여하는 외국 기업도 많은 스리랑카 지역 기업도 포함한 경쟁은 과열되고 있다.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출처

일본 무역진흥기구, 가속하는 도시화, 정비가 진행된 콜롬보의 교통 인프라·주택, 2018.6.20.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2018/161c57f8f227f5df.html>